

“경찰 고위직 출신, 일 잘할 것” vs “10년 지역 기반 있다”

〈류삼영 민주당 후보〉

〈나경원 국민의힘 후보〉

총선 유세현장 가보니

서울 동작을

野 정동영 “정의감 갖춘 인물” 지원
與 “동작 승리, 전국 판세 영향줄 것”
보수 텃밭 서초·강남, 정치권 주목
野 “송파 균열 뻗치면 이번 가능성 ↑”

서울 동작, 서초, 강남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은 지역이다. 서초와 강남은 ‘강남 3구’(강남·서초·송파)로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 성향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.

그러나 동작구는 좀 다르다. 동작구의 경우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고, 동작을 역시 민주당세는 강하지만 보수정당 후보도 종종 당선됐다.

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<메트로경제신문>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구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. 해당 지역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이 있고, 주요 유세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. 양 후보 캠프는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.

나경원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8381표(7.12%포인트) 차이로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. 하지만 나 후보는 2014년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고,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.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왔다. 즉 10년간 해당 지역을 닦아온 셈이다.

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나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.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‘컷오프’(공천배제) 조치하고,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.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‘발달이’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.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“동작은 넘어갈 수도 있어”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.



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<메트로경제신문>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구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. 사진은 이날 이수역 앞 교차로에 나경원 국민의힘·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. /서예진 기자

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‘컷오프’(공천배제) 조치하고,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.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‘발달이’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.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“동작은 넘어갈 수도 있어”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.

그러나 22대 총선의 구도가 ‘정권심판’으로 잡히면서 동작을에도 정권심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자체조사(3월27~28일 조사, 무선(91%)·유선(9%)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)에서 나경원 후보는 43.1%, 류삼영 후보는 48.8%로 나타났다.

지난 3월 11일 발표된 지지율 조사(3월 4~5일 조사, 무선(100%) 전화면접 조사)에서는 나 후보가 44.2%, 류 후보가 34.7%였으니 역전을 한 셈이다. (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)

여당 소속 수도권 후보들은 최근 정권심판 구도에 더해, 대통령실 발(發) 악재로 인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. 나 후보 측 역시 같은 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‘의대 증원’ 관련 담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. 다만 나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시 격차를 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“동작에서 이기는 것이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‘추격자’인 류삼영 후보 측은 “현재는 박빙 열세”라고 진단했다. 나경원 후보가 오랜 시간 지역을 닦아온 것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. 류 후보 측 관계자는 “여론조사가 앞서서 것이 나

왔다고 해서 고무될 이유는 없다.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지 않나” 라면서 “다만 박빙에 접어든 만큼 하루 하루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날 동작을엔 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후보가 방문했다. 정 후보는 과거 동작을에 출마한 바 있다.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정 후보는 “정동영이는 여기서 옛날에 떨어졌지만, 이번에는 류삼영을 확실히 당선시켜달라”며 “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인물은 바로 류삼영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(60대 추정)은 “옛날에 정동영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”며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고, 정 후보의 지지연설을 기다리던 한 시민(70대 추정)은 “정동영이 지

원도 하러 왔으니 좋고, 경찰에서 높은 계급 출신이라 일도 잘 할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났다. 동작에서 오래 거주한 한 70대 남성은 “일단 민주당이 싫다”며 “나 후보가 이곳에서 오래 터를 닦았고, 여당 후보가 돼야 힘이 있지 않느냐”고 말했다. 또 다른 60대 남성은 “나 후보가 동네를 잘 아니 여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”고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서울 서초, 강남지역은 여전히 ‘보수정당의 철옹성’으로 평가받는다. 서초갑·을, 강남갑·을·병 모두 민주당에는 ‘협지’로 불리며,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.

하지만 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서초을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.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되면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받았고, 홍 후보도 이 지역 출마는 처음이다. 양쪽 모두 지역에서는 ‘신인’인 셈이다. 지난 선거에서 박경미 후보(현재 서울 강남병 출마)가 45.01%를 받아 낙선을 했기에, 이번에는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.

하지만 정권심판의 바람이 보수 텃밭 강남 3구에도 불어닥칠지는 미지수다.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·서초지역에 대해 “송파에서 보이는 균열이 서초와 강남까지 뻗친다면 이번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본다”고 전망했다.

/서예진 기자 syj@metroseoul.co.kr

김재섭 “도봉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정치·힘 갖춰”

총선, 이 후보가 궁금하다

21대 총선 이후 꾸준히 기반 닦아
“도봉에 대한 입체적 이해있다” 자부
“가장 중요한 것, 교통·주거·산업”

“4년 전 선거가 ‘노와르’라면 지금은 ‘로맨틱 코미디’에 가깝다.”(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)

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(36)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(국민의힘 전신) 후보로 도봉갑에 출마한 바 있다.

그는 지난달 29일 <메트로경제신문>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. 21대 총선 당시엔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하루종일 명함을 뿌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,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.

김 후보는 “지금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보니 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됐다”면서 “예전에는 ‘지라시’를 돌리러 가는 거 같았다면, 이번에는 민원탐방을 하다가 장도 보고 하는, 지난 4년 동



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(36)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전에 21대 총선 당시에도 이 곳에 출마를 했다. 사진은 본지와 인터뷰를 하는 김 후보. /김 후보 캠프 제공

안 했던 일을 강도만 더 높여서 하는 기분”이라고 말했다.

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던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. 그는 “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·주거·산업이다. 이를 풀려면 정부, 서울시장, 구정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저는 시장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고, 구청장과는 긴밀하다. 저와 같이 일하는 시·구의원도 있다”며 “말 그대로 ‘첫날부터 능숙하게’ 일할 수 있는 후보”라고 자신했다.

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. 특히 도봉갑은 1호선 녹천역, 4호선 쌍문역, 1·4호선 쌍문역 등

지하철역이 세곳 뿐이고, 도로교통도 불편하다. 이를 해결해야 젊은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.

그는 GTX-C 노선을 착공하면 어느 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,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했다. 김 후보는 “사이사이 고속철도를 넣어주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, 같은 노선을 쓰는 SRT나 KTX 등을 단거리 노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김 후보는 도봉갑 유권자를 향해 “4월에 딸이 태어나면 4대째 도봉구에 사는 것”이라며 “4대에 걸쳐 도봉에 사는 사람으로 애정이 있으며, 도봉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. 또 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정치 여건과 힘을 가진 것도 저라고 생각한다”고 호소했다.

이어 “지금 기회를 놓치면 도봉은 또 30년 낙후될 위기에 처한다”며 “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저도 함께 혼나고 있지만,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시고, 고민없이 김재섭을 선택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
/서예진 기자

“과제·현장 문제들 국민 입장에서 생각”

>> 1면 ‘빠른행동·벽 허물기로...’서 계속

윤 대통령은 “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,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”며 “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,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나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면서 크게 바뀌었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“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”며 “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 벽도 무너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”고 부연했다.

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결과,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번 진행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.

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와 관련 ▲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▲의료개혁 ▲늘봄학교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. /박정익 기자 pathfinder@